

김종인 “5·18,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어”

한국지방신문협회 국회출입기자단 간담회

호남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 커... 호남 아올리아 수권정당 호남 제2지역구 추진... 의지·행동으로 국민 통합 나설 것

김종인(사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내에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호남 출신인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을 위원장으로 정했다”며 “말로만 호남 배려를 주장하지 않고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 등 전국 각 권역을 대표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 국회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남에 통합당 지역구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따라 호남을 제2의 지역구, 명에 지역구로 하겠다는 당 의원들이 1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호남이 인구가 적다고 정치적으로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수도권 등 전국에 살고 있는 호남 출향 인구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호남을 챙기는 것은 수권 정당을 지향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강·정책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넣는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노태우 정부 때 민주화운동으로 확정됐으며 그동안 당의 정강·정책에 담겨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래통합당 전신 정당에서 호남을 포기하고 반대 급부로 영남 결집을 노리는 전략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청와대 사람들은 세상을 옳게 보지 못한다. 나갈 때까지 자기 맘대로 될 거라고 착각한다. 지역 문제도 다 그래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당의 호남 지지를 상승에 대해 “국민은 현명하다”며 “괜히 쓸데없는 것 하면 항상 손해 보게 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수도 이전과 관련, 김 위원장은 “수도 이전은 합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서울은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국제적 위상도 이미 정립돼 있는데 서울 집값 오른다고 수도 이전을 하려는 정치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수도 이전해서 성공한 나라도 별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잘못해서 집값이 오른 것이다. (일가구 일주택) 집 가진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다”며 “그런데 집 값 올랐다고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집 팔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세제 상의 가중치를 두는 것과 관련, “그것은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면서도 “하지만 역발적 세금은 안된다.

세금의 역사는 정치 혁명의 역사다. 세금을 잘 못 건드려 성공한 정부는 없다. 세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없는 사람은 지지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결국 (경제적 현실상) 중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3번이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사람을 계속 쓰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니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최근 청와대 수석 인선에서 1가구 1주택이 임용 조건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참 창피스러운 얘기”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감독 기관 신설 추진과 관련, “또 세계에 없는 것을 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우격다짐식으로 정책을 하니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김 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해라 마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할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학 개미 등 주식 열풍에 대해서는 “큰 코 다칠 것”이라며 “노력보다 일확천금을 노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윤미향 ‘정의연 의혹’ 검찰 출석

회계 수사 3개월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연 의혹(정의연 회계 의혹 관련 조사)을 받기 위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윤 의원을 횡령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의원의 이번 검찰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윤 의원이 오래 대표를 맡았던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2018년과 2019년에 윤 의원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 모금을 한 적이 있는 점과, 안성 심터 건물을 2013년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원에 매각한 점 등과 관련해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후원금의 사적 유용 여부나 건물 매입 및 매각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올해 광복절 특사 없을 듯

靑 “심의절차 진행 안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관련 언급이 나오는 가운데 광복절을 계기로 한 특사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장관이 상신을 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

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박(친박근혜) 계로 분류되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각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통합 등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논의된 바 없고, 논의할 시기도 아닌 것 같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정의당, 대표 권한 축소·청년당 신설

혁신위, 국회 간담회

정의당의 쇄신을 논의하는 혁신위원회가 13일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고 청년 정당을 신설하는 등 혁신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당의 일상적 최고 의결기구로 ‘대표단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단회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부대표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현행 정의당 대표단(심상정 대표, 김종민·박예휘 부대표)은 대표가 사실상 혼자 의사결정을 하고 모든 책임도 떠안는 구조여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위는 ‘당 안의 당’ 성격의 ‘청년정의당’ 조직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청년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의 부대표가 돼 대표단회의에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한때 논의됐던 당비 인하는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연합뉴스

“가장 필요한 대책은 실수요자 대출 완화”

국민권익위 부동산 대책 설문

가장 필요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가 꼽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1만 2114명을 대상으로 벌인 부동산 대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잇따르자 국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1.6%(8674명)은 유주택자였고 나머지

28.4%(3440명)은 무주택자였다. 우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유주택자(46.8%)와 무주택자(38.6%) 모두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선 주택 소유 여부 따라 의견이 갈렸다. 유주택자는 건축 규제 완화(31.5%), 재개발 규제 완화(24.1%), 공공·임대주택 확대(19.9%) 순서로 응답이 많았던 반면 무주택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33.4%), 신규 택지 공급(31.9%), 건축 규제 완화(17.5%) 순이었다. /연합뉴스

靑 신임 참모진 5명 “文 정부 성공 최선”

여야 지지율 역전 엄중 인식
“국민들께 믿음 주겠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처음으로 지지도를 추월당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비서실에 새로 합류하게 된 5명의 수석비서관들은 13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엄중한 시기임을 고려해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교체는 여권의 지지층 이탈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쇄신의 의미가 담겼다는 점에서 신임 수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미래통합당에 3.1%포인트 뒤지면서 2016년 10월 이후 첫 추월을 허용했다. 청와대에서는 공식반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정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성공하면 국민도 좋고,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도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편하겠다. 국민을 하늘같이 생

각하고 국민께 믿음을 주겠다”고 했다. 김준호 민정수석은 ‘춘풍추상’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추상같이 대하겠다. 권력기관 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남 시민사회수석도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고, 윤창렬 사회수석 역시 “포용국가의 큰 방향 속에서 세부 정책을 잘 실천하도록 내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정부의 노력을 국민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국민의

의견도 가감없이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최근의 청와대 개편에 대해 “청와대 수석급 이상의 인사는 일단락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